

마태오 복음서 7장

남을 심판하지 마라(루카 6,37-38.41-42)

- 1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¹⁾
- 2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²⁾
3.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³⁾
5.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1) 사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하느님만이 지니시는 권위를 침해하면서 남을 단죄하지 말라는 것이다.⁴⁾

2) 남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한다. 자신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티’는 작은 결점이고, ‘들보’는 큰 결점이다. 자신의 큰 결점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결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위선이다. 위선은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 6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밟고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⁵⁾

1) 로마 2,1 : 그러므로 아,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코린 4,5 :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마다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 4,11 :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2) 마르 4,24 :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3) 요한 8,7 :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4)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81쪽, 각주 1.

5) 잠언 23,9 : 우둔한 자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식견 높은 너의 말을 업신여길 뿐이다.
집회 22,9-10 :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옹기 조각을 붙이는 자와 같고 깊은 잠에 빠진 자를 깨우는 자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사람은 조는 자에게 말하는 자와 같다.

- 1) “거룩한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하느님께 바친 제물이나 예물, 여기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 또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
- 2)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 곧 복음이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무지하고 악한 자들로 이들은 복음을 알지 못한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루카 11,9-13)

- 7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⁷⁾
- 8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의 간절함을 가르치신다. 간절한 기도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는 믿음에 비례한다.

- 9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 10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 11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⁸⁾

인간이 온갖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느님께서야 오죽하시겠나.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온갖 선을 풍성하게 응답의 선물로 주신다.⁹⁾

말이 끝나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하고 묻는다.

- 6) 앞, 각주 3 참조.
- 7) 마르 11,24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 14,13-14 :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 아고 1,5 :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 1요한 3,22 :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 8) 야고 1,5,17 :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 9) 로마 8,28 :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황금률(루카 6,31)¹⁰⁾

12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보답을 바라고 선을 행하지 말며, 솔선하여 행동하라고 가르치신다. 이는 ‘율법과 예언서’ 곧 성경 전체의 정신을 종합한 말씀이다.¹¹⁾ 이는 무엇을 바라지 말고, 주라는 말씀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루카 13,24)

13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¹²⁾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 1)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젠가는 택일해야 하는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신다. ‘좁은 문’은 산상설교에 담겨 이는 철저한 요구 사항, 또는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라는 절박한 부르심이다.¹³⁾
- 2)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문이다. 이 문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참으로 좁은 문이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루카 6,43-44)

15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게걸든 이리들이다.¹⁴⁾

10) ‘황금률’은 기원후 3세기의 로마 황제 알렉산데르 세베루스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자기 거실 벽에 붙인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물론 고대의 동양과 서양의 여러 현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하였다(앞, 82쪽, 각주 7 참조).

11) 위, 각주 7 참조.

12) 마태 19,24 :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요한 10,9-10 :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사도 14,22 :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13) 앞, 각주 8.

14) 루카 6,26 :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 16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¹⁵⁾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¹⁶⁾
-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¹⁷⁾

- 1) 열매“는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구체적 품행을 드러낸다. 이러한 품행이 예언자들이 하는 활동의 진실성 여부를 식별하게 해 준다.¹⁸⁾
- 2)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의 행위로 판별된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루카 13,25-27)

-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¹⁹⁾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²⁰⁾
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²¹⁾

예제 22,27 :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먹이를 잡아 찢는 이리와 같아, 부정한 소득을 얻으려고 사람의 피를 쏟고 목숨을 파멸시킨다.

사도 20,29 :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 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 15) 야고 3,12 :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습니까? 짠 샘도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 16) 루카 3,9 :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요한 15,6 :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 17) 갈라 5,19-23 :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 18) 앞, 각주 10.

- 19) 이사 29,13 :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고 나에게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계명일 뿐이니

- 20) 로마 2,13 : 율법을 듣는 자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요한 2,17 :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 21) 예레 14,4 :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거짓 환시와 엉터리 점괘와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일 따름이다.”

23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²²⁾

- 1) ”아버지의 뜻“은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신 것 전체를 뜻한다.²³⁾
- 2) ”그날“은 하느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에게는 벌 또는 구원이 드러나는 ‘심판날’을 가리킨다.²⁴⁾
- 3) ”주님, 주님!“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필요하기까지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입으로 하는 고백에 실천이 따라야 한다.²⁵⁾
- 4)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고백은 행위로써 나타나야 한다.

내 말을 실행하여라(루카 6,47-49)

24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²⁶⁾

25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²⁷⁾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²⁸⁾

- 1) “나의 이 말”은 산상설교의 가르침 전체를 뜻하며,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설교의 결론으로 실행을 강조하신다.

22) 2티모 2,12 :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23) 앞, 83쪽, 각주 11.

24) 위, 각주 13.

25) 위, 각주 12.

26) 야고 1,22-23 :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27) 팔레스티나 땅에는 나무가 작고 바위가 많아, 큰비가 오면 바로 급류를 이룬다.

잠언 10,25 : 폭풍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토대 위에 서 있다.

1요한 2,17 :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28) 욕 8,15 : 제집에 의지하지만 서 있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만 지탱하지 못한다네.

예제 13,10-12 : 정녕, 평화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화롭다고 말하면서, 내 백성을 잘못 이끌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담을 쌓으면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비가 쏟아지고 큰 우박들이 떨어지며 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벽이 무너질 때에, 너희가 칠한 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느냐?

- 2) 실행은 외적인 실천이나 내적 결단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존재 전체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²⁹⁾
- 3)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환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 4)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신앙생활은 한다. 하지만 듣는 바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함에도 게으른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며 신앙생활에 미지근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청중의 반응(마르 1,22; 루카 4,32)

28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29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 1) “말씀들”은 지금까지 하신 여러 말씀, 곧 삶에 관한 온갖 지침들을 뜻한다.³⁰⁾
- 2)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 속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신다는 것이다.³¹⁾

29) 앞, 각주 15.

30) 위, 각주 17.

31) 위, 각주 18.